더민주 친노·86그룹 퇴조…국민의당 안철수 측근 강세

마무리 국면 접어든 野 공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의 4·13 총선 후보자 공천 작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더민주=17일 오전까지 전체 253개 지역구 중 85.0%인 215곳에 대한 심사를 끝낸 상황이다. 현재 24곳은 공천 신청자가 아예 없고 14곳에 대한 막판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까지 현역 의원 탈락자 수는 모두 30명이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컷오프 탈락자 10명과 불출마자 5명, 정밀심사 탈락자 9명, 경선 탈락자 5명, 강기정 의원 등이다. 20% 컷오프 탈락자 발표일인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하면 재적의원 108명 중 27.8%가 물갈이된 셈이다. 향후 경선 지역에서 현역 탈락자가 추가로 생길 수 있어 현역 물갈이 비율은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번 공천의 특징은 강경파로 분류되던 친노(친노무현)와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학생운동권 그룹의 상대적 퇴조다. 특히 범친노인 정세균계는 초토화됐다. 정세균·이원욱 의원이 살아남았지만 이미경·강기정·오영식·전병헌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고 최재성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86그룹 중에서는 전대협 1~3기 의장 중 오영식 의원(2기)과 임종석 전 의원(3기)이 탈락하고 이인영 의원(1기)만 공천을 받았다. 86그룹인 정청래 의원도 탈락했다.

10여명의 박원순 시장계 인사 중에서는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의 공천만 확정됐다.

반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은 다수 공천을 받거나 경선 대상에 올라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이번 공천을 거

더민주
현역 물갈이 30명 넘어설 듯
친문 인사들 다수 살아 남아

국민의당
4차 발표까지 총 104명 공천
광주·전남 경선 결과 주목

치면서 친노가 친노와 친문으로 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김 대표의 공언과 달리 계파주의 청산이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많다. 친노와 86그룹을 집중 타깃으로 삼았지만 상징성 있는 대표 인사만 컷오프되는 수준에 그치고 대부분은 공천을 받아 세력교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지난 16일 4차 공천 발표까지 광주 2명, 전남 2명 등 모두 104명을 공천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구에서는 경선이 진행 중이거나 후보를 물색 중이다. 이 같은 과정에서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 측과 천정배 공동대표 측이 경쟁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지난 4차 공천 결과에서는 몇몇 지역구 발표가 보류됐다.

하지만, 그동안은 안 대표가 자신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예비후보들이 대부분 공천을 받거나 경선 대상에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신의 비서실장 출신인 문병호 의원이 인천 부평갑 단수공천을 받은 데 이어 김성식 전 의원은 서울 관악갑 공천이 확정됐다. 정기남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경기 군포을), 이계안 전 의원(경기 평택을), 곽태원 한국노동경제원장(서울 용산),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경기 남양주을) 등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

김경록 대변인과 서정성 전 안철수 의원 보좌관은 광주 공천을 놓고 경선을 벌이고 있고,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과 김지희 직능위원장은 비례대표 후보로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안 대표의 측근 중 현재까지 공천 탈락 인사가 거의 없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민의당이 안 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 김한길 의원 등의 '3두 체제' 성격이 강했음을 감안하면 안 대표의 당내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정당당한 경선 치르겠다" 국민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광주시당 사무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광주 숙의배심원제 경선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경선 후보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문재인·안철수 웃고 박원순·천정배 울고

野 대선주자 공천 성적 희비

4·13 총선 공천 결과에 야권 대선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 대표는 공천에서 실리를 챙기며 총선 이후 대선 정국을 대비한 세력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며 '쪽박'을 찼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표의 경우, 일부 친노 인사들의 공천 배제에도 불구하고 친문(친문재인) 인사들 상당수가 공천에서 살아남았다. 문 전 대표가 입당시킨 25명 가량의 외부 영입인사도 대부분 지역구 단수공천을 받거나 경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상당수의 친문 성향 인사들이 비례대표에 도전장을 던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 더민주의 주류는 친노가 아닌 친문 세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대표도 공천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예비후보들이 대부분 공천을 받거나 경선 대상에 포함됐다. 자신의 비서실장 출신인 문병호 의원이 인천 부평갑 단수공천을 받은 데 이어 김성식 전 의원은 서울 관악갑 공천이 확정됐다. 정기남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경기 군포을), 이계안 전 의원(경기 평택을), 곽태원 한국노동경제원장(서울 용산),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경기 남양주을) 등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

김경록 대변인과 서정성 전 안철수 의원 보좌관은 광주 공천을 놓고 경선을 벌이고 있고,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과 김지희 직능위원장은 비례대표 후보로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하지만, 안 대표 사람들이 과연 총선에서 살아남을지는 미지수다. 정치적 현실을 감안하면 총선 이후, 호남지역 의원들이 당을 차지하면서 오히려 안 대표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박 시장의 공천 성적표는 처참한 수준이다. 그동안 10명 가량의 측근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활발한 '박원순 마케팅'을 벌였지만 공천이 확정된 이는 서울 성북을 단수공천을 받은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1명에 불과하다.

오성규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강희용 전 더민주 부대변인은 경선을 남겨놓고 있고, 권미혁 당 뉴파티위원장은 비례대표 심사를,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광주 전략공천설이 있지만 총선 생존 여부는 미지수다. /임동욱기자 tuim@

더민주 공천 탈락 부좌현 의원 국민의당 입당

전병현 의원도 입당 검토…임내현 의원 탈당 회견 연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공천에서 배제된 부좌현(경기 안산단원을) 의원이 17일 탈당,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현역 국회의원은 21명으로 늘게 됐으며 당내 공천에서 컷오프 된 임내현 의원이 탈당하더라도 원내교섭단체 지위(20석)를 유지하게 됐다.

부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당 마포 당사에서 입당 회견을 열어 "20대 총선 안산단원 을에서 새누리당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계기를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입당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공동대표 보좌관 출신인 부 의원은 "많은 분들이 천 대표의 행보에 따라 제가 정치적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공천서 배제된 이유를 단 하나라도 찾으려 했지만 스스로 납득할 이유를 도저히 찾지 못했다"고 탈당의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당 내에서는 김기완 전 안산시의회의장이 안산단원을에 출마를 준비해왔으며, 오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의 선거구 조정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민주 공천 탈락이 확정된 전병헌 의원도 사실상 탈당을 결심하고 주말을 전후해 국민의당 입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공천 탈락 이후, 국민의당 관계자들과 동교동계·구민주계 원로들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탈당 선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던 임내현 의원도 기자회견을 오는 21일로 연기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임 의원이 당초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정국 상황이 급변하면서 최종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의 공천 파행 사태에 따라 국민의당은 합리적 보수 성향 인사 영입에도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안철수 상임대표는 합리적 보수 인사 영입과 관련, "그건 원래 당의 방침"이라는 입장을 나타냈고 김영환 인재영입위원장도 "계파정치에 희생된 합리적 보수, 개혁적 진보 세력에 문호를 활짝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

김한길 "야권 연대 실패 책임…총선 불출마"

4선의 국민의당 김한길(서울 광진갑) 의원이 17일 "야권연대를 성사시키지 못한 데 스스로 책임을 물어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1월 야권의 '창조적 파괴'를 외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함께 두 번째 공동창업에 나섰으나 야권연대 문제를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결국 '백의종군'이라는 벼랑에 섰다.

김 의원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작금의 정치상황에서 집권세력의 압승이 불러올 끔찍한 상황을 막아내고 동시에 우리 당이 수도권에서도 의석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당 차원의 야권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를 성사시키지 못한 데에 스스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철수-천정배-김한길' 국민의당의 트로이카 체제는 깨졌다.

김 의원은 탈당하지 않고 당에 머물며 총선에서 후보자들의 요청이 있으면 선거지원을 통해 일정 역할을 자임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분간은 정치적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박지경기자 jkpark@